

눈물 참아도 흐르는 '어른들의 멜로'

서울예술단 영화 '국경의 남쪽' 뮤지컬로 재탄생

뮤지컬 '국경의 남쪽'은 3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의 역대 작품 중 가장 애뜻한 멜로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을 '창작가무극'으로 일컫는 이 단체는 연기·노래와 함께 춤이 강조되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섬세한 드라마의 결을 자랑하는 연출가 추연주(41)·작곡가 이나오(35)가 '국경의 남쪽'을 통해 이 단체에 애잔함을 더한다. 차승원 주연의 영화 '국경의 남쪽'(2006·감독 안판석)이 원작이다.

운명적인 첫사랑을 키워가는 선호와 연화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탈북으로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의 실태를 멜로로 풀어낸다. 추연주·이 작곡가는 자신하고 관객을 울리기보다, 참아도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어른들의 멜로'다.

최근 두 사람을 서울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에서 만났다. 창작 뮤지컬계 내로라하는 창작진들이다.

한예중 연극인 출신인 추연주는 대표작 '빨래'를 비롯해 '한밤의 세레나데' '월드인' 등 창작 뮤지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뮤지컬 작곡을 공부한 이 작곡가는 '콩칠팔 새삼록' '포에티' 단 두 작품으로 창작뮤지컬계 기대주로 떠올랐다. 최근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들이 눈에 띄지만 굳이 이들이 다음은 '국경의 남쪽'을 영화 기반의 뮤지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뮤지컬만의 특색으로 재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연주는 "텍스트 자체에서 영화적인 특성을 강화하기보다 이야기 자체를 지금과 멀지 않은 이야기로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영상 장면들에 포커싱을 둔 것이 아니다. 탈북민이 옆집 오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으면 했다."

이 작곡가 역시 "선호의 사랑하는 방식을 노래하고 싶었다"며 추연주의 말을 확인했다. 특히 그녀는 "국경의 남쪽"이라는 낱말이 좋다고 했다. "국경의 북에서 남을 바라보는 시선, 즉 저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저릿하고 아프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스며드는 사람 또는 구름 위를 걷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다각도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직접 탈북자를 인터뷰하며 이야기를 곁집이 쌓여갔다. 추연주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기를 바라더라. 없는 이야기가 더해지는 것이 아닌, 나 역시 '오늘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했다. 식당에 가면 선호 엄마가 서울말을 쓰면서 계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라고 말했다.

"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이야기가 탈북하신 선생님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 말을 배우면서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 과정들이 음악과 연기,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묻어나고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

이 작곡가는 탈북자의 말씨에 음악적인 무엇을 느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데 말씨 자체가 흥이 난다. 신기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표현도 많다. 거침없는 말투에 시적인 표현들이 섞여 나온다."



극공립 단체인 서울예술단은 뮤지컬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극단 분위기가 나는 단체다. 젊은 배우부터 이들의 부모 벨 되는 배우들이 '가족처럼' 함께 연습하고 어울린다. 악기, 무용, 연기 등 각자 전공은 모두 달라 서로 배우고 가르침도 준다. 가족에도 초점을 맞춘 '국경의 남쪽'이 더 끈끈해지는 이유다.

'국경의 남쪽'이 기대를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추연주와 이 작곡가의 첫 협업작이라는 점이다. 약 3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이들은 추연주가 이 작곡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속내를 알아가는 등 자연스럽게 뮤지컬 작업에도 이를 투영했다.

추연주는 "어떤 전체 작곡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진작 들었다. 이릉도 신기하고... '콩칠팔 새삼록'만 봐도 뛰어난 작곡가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 작곡가를 지켜서왔다.

'국경의 남쪽'의 주요 스태프는 두 사람 외에 극작 정영, 안무 홍세정, 음악감독 신경미 등 모두 여성 창작진으로 구성됐다. 추연주, 이 작곡가의 세밀함의 결이 더 촘촘해지고 있는 이유다.

선호 역에는 서울예술단 스타 단원 박영수와 무용단원 출신으로 첫 주역을 떠낸 정수아가 더블 캐스팅됐다. 선호의 첫 사랑 연화 역에는 뮤지컬 '아랑' '여신'이 보고 계셔의 최주리와 서울예술단의 신예 송문선이 나눠 맡는다. 이들은 본인 이 주역을 맡은 화차 외에는 앙상블로 등장한다.

31일부터 6월12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예술감독 최종실, 배우 하선진, 김도민, 조풍래 등 서울예술단 단원들이 나온다. 러닝타임 120분 예정(인터미션 없음). 3만~6만원. 02-523-0386

/이성주 기자

고창군 토요 국악상설공연 '동리와 놀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형유산 종목을 선보이는 국악상설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8일 고창읍성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 토요 국악상설공연 '동리와 놀다'는 국악 만점 김소희 명창의 직계 제자인 이명희 명창이 '심청가', '흥보가' 등 전통국악과 '사정정감' 등 무용도 함께 선보였다.

주말을 맞아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 신재효 고택 등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은 판소리와 전통 국악의 흥겨움이 살아 숨 쉬는 공연도 보고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고창으로 오소' 프리마켓의 특산물 물품을 접하고 전통놀이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리와 놀다'는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총 12회 공연으로 기획됐으며, 다음 상설공연은 6월 18일과 6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악상설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시설사업소(063-560-8041)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국악협, 고수대회 참가자 모집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는 제 36회 전국고수대회 참가 할 고수를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가능하나 타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및 문화재 기능보유자는 제외된다. 학생부는 재학생, 노인부는 만60세 이상, 신인부는 비전공자 이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6월 25까지로 우편접수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리로31 한국소리문화전당내 국제회의장 3층 (우)54901로, 문의전화는 271-2259, 팩스신청은 063-271-2294, 메일접수는 jkugak@hanmail.net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악신문사, (사)전북예총, (사)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6회 전국고수대회는 내달 26~27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대회는 전주시, KBS전주방송총국,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명고수부, 명고부, 일반부, 신인부, 노인부, 학생부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강영란, 김미숙, 김미정, 김세미, 김연, 김찬미, 모보경, 문영주, 박미선, 박정아, 양은희, 이가연, 정수인, 주소연, 천희심 등 각 대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고수들의 복장단에 호흡을 맞춘다. /정해은 기자

고창군, '도리화 귀경가세' 플러스티켓 판매 눈길

공연 전 문화해설사 동반 산책 후 새삼 먹고 관광

고창군의 한옥상설공연 '도리화 귀경가세'의 작품 배경이 되는 동리정사 신재효 고택과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고창읍성을 산책하고 저녁 새삼도 제공하는 '플러스티켓'을 판매해 눈길을 끈다.

플러스티켓은 올해 2년 차를 맞은 '도리화 귀경가세'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티켓으로 매 공연 선착순 20명에게만 제공한다. 가격은 1만 5천원이다.

공연 관람권은 물론 고창군 유명 맛집과 숙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먹·놀·자쿠본과 고창군 문화해설사가 동행하는 고창읍성 산책 프로그램, 저녁 새삼을 제공한다.

플러스티켓을 구매하면 고창군 문화해설사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리정사 신재효 고택에서 '감성산책'을 시작한다. 문화해설을 맡은 조복환 해설사는 지난 2008년부터 고창읍성 문화해설을 맡은 베테랑 해설사이다. 1만 5천원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공연

주관단체인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준비한 블로그 이벤트를 눈여겨봐도 된다.

보존회에 따르면 '티켓 1장 값으로 4명이 즐기는' 플러스티켓 이벤트가 오는 6월 5일까지 이어진다.

참여 방법은 블로그 비밀 댓글로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된다.

김해경 기획팀장은 "플러스티켓을 통해 '도리화 귀경가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창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마련했다"면서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로그 이벤트는 '도리화 귀경가세' 공식블로그(blog.naver.com/gochanggut)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리화 귀경가세'는 고창 출신의 판소리 이릉가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사제간의 그리움과 예술혼을 다룬 '버라이어티 감성음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해설사와 고창읍성을 산책하고 있다.

전라북도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작품은 오는 5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고창읍성 내아에서 펼쳐진다.

7~8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금요일에도 공연이 펼쳐진다. 예매는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Info.asp?GoodsCode=16005730>)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문의 063-562-2044.

도, 남원에 청소년도서관 건립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역 간 독서·교육·문화격차를 해소 하고자 마련된 도서관이 남원에 세워진다.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16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27일 밝혔다.

이에 도서관은 남원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도동동 일대 부지 850㎡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42억원을 들여 지하층 지상3층의 연면적 2,000㎡의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도서관은 청소년실, 일반열람실 등의 공간이 배치되며, 어린이·청소년 도서 5만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2018년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전북도 윤석중 문화예술과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학습 환경이 특성화된 도서관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30일)

<p>▷쥐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운. 60년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방법을 배우기에 좋은 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72년생: 크게 움직이는 것은 불리하다. 84년생: 권법을 이용하면 만민에게 밝혀진다.</p>	<p>▷소띠 49년생: 동기간의 구설이 휘발될 수 있는 운. 61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되고 듣기 거북한 말이 악이 될 수도 있는 법. 73년생: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라. 85년생: 사소한 일에 통요가 되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문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움직이면 원망을 듣게 되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운이다. 74년생: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86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출리는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7년생: 이렇스런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p>
<p>▷용띠 52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64년생: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76년생: 속마음과 다르게 언행을 하게 되니 솔직한 자기표현이 필요한 운이다. 88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있다.</p>	<p>▷뱀띠 53년생: 상행은 좋게 흘러가겠다. 65년생: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리기 힘들니 미리 주의하라. 7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귀인이 나타난다. 89년생: 동기간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6년생: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운이다. 78년생: 허리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은 때.</p>
<p>▷원숭이띠 56년생: 뜻하지 않은 횡행으로 근심이 생긴다. 68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마라. 80년생: 평소와 다른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으니 무리하지 않아야 하는 운.</p>	<p>▷닭띠 57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69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81년생: 대가를 바라던데 실망이 크니 마음을 비워라. 93년생: 평소와 다른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p>	<p>▷개띠 46년생: 근심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58년생: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82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니 먼저 배롱된 화답이 있을 것이다.</p>	<p>▷돼지띠 47년생: 이상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나 구설이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59년생: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라. 7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p>